

뽕뽕이 흠어진 신안선 유물 한자리서 본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12월 31일까지

복원 신안선과 함께

출토유물 4500점 전시

놀이도구·향신료·거울...

700여년 전 생활상도 만나

동아시아 문화 이해 기회



‘보물선’ 신안선은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도자기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12일부터 45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는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내부.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신안선’은 한국 수중 발굴 첫 보물선으로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건져 올린 도자기를 기화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세기의 발견’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래 신안선은 중국 원나라 무역선으로,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신안해저에 침몰했다. 당시 배에서는 무역품뿐 아니라 고려의 공예품과 생활용품도 발견됐다. 그러한 연유로 14세기 바다를 무대로 무역활동을 펼친 아시아 상인들의 삶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신안해저유물은 지난 1994년 신안선의 첫 전시 이후 20년만인 2004년부터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출토된 일부 유물만 공개돼, 일반인들은 전체 유물의 규모나 종류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발굴 이후 지금까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4500여 점의 신안선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영)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제2전시실(목포)에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안선과 그 보물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복원된 신안선과 함께 전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전시회에서는 신안선을 만들 때 방수처리 용도로 사용한 방수재도 복원과정을 거쳐 공개된다. 이 방수재는 어선 건조 당시 판재와 판재 사이에 석회와 동백기름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침몰 당시를 재현한 영상도 마련됐다. 전시실 벽면에 영상 자료를 비치해 풍광을 만나 침몰하게 되는 순간 등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려 도기 향아리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특별전은 총 4부로 구성됐다. 모든 유물은 신안선 주위에 배치해 현장감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신안선 출발지인 중국에서부터 일본 교토로 향하던 당시 선원들의

항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조점을 맞췄다.

제1부 ‘1323년 여름, 중국 정위엔(慶元)에서 돛을 올리다’는 700여 년의 시공간으로 들어가 신안선 이야기를 유물로 만나는 시간이다. 화물표인 목간, 청자 7점과 청동거울, 청동 저울추 등을 선보인다.

제2부 ‘신안선의 보물, 중세 동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다’는 당시 문화가 지닌 보편성을 제시한다. 대량으로 발견된 중국 동전을 비롯 베트남 동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유행한 차, 향, 꽃장식이 담긴 도기 등을 볼 수 있다.

제3부 ‘또 다른 무역품, 아시아 생활문화를 만나다’는 승선원들의 생활상을 엿보는 기회다. 지루한 뱃길을 달래던 선원들의 놀이 도구와 주방도구 등이 전시된다. 아시아 황금으로 불리던 향신료와 향나무를 비롯해 생활소품인 거울과 화장도구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제4부 ‘항해와 침몰, 그 끝까지 않는 여정을 이야기하다’는 무역품 포장 형식이나 적재 방법을 통해 신안선 구조를 이해하는 공간이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역사

와 발굴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는 유물과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안선에 탄 승선원 일부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승려 대지선사(1290~1366)의 전기와 ‘고려사’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중국의 정위엔 ‘텐둥찬사’에서 유학한 대지선사 전기에 의하면 ‘1323년 귀국하던 중 흑룡을 만나 고려 연안에 표류하여 고려 충숙왕을 순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사’에는 충숙왕 11년(1324년) 7월 19일 ‘표류민 220여 명을 일본으로 귀국시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문화재는 발굴 현장에 있을 때 의미가 높다. 마찬가지로 신안선은 신안에 있을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하는 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박예리 연구사는 “신안선 유물이 모두 전시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예술은행 신소장작품 전시회

14~20일 금호갤러리...작가 42명 작품 선보여

유·스퀘어 문화관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은 남도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작년에 이어 남도예술은행 신소장작품 전시회를 연다. 14일부터 20일까지 금호갤러리 1, 2관.

이번에 준비된 전시는 지역미술작가 창작지원 및 아트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술작품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로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 도예 등 총 42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작품 공모는 남도예술은행 작품구입과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 2개 분야로 추진됐다. 기존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4개 분야에서 도자공예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작품 크기도 20호 이내에서

50호까지 커지는 등 지원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구입작품은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 사업을 위해 선정된 임대작품과 함께 작품전시, 판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전남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꾸준히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작품을 기관, 단체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임대를 하고 있다. 문의 061-280-58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나희 작 '살 풍경'

소촌아트팩토리 '산업단지 프레 비엔날레'

30일까지 첫 기획전 '노동자×예술가 사진 프로젝트 맘'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작가 레이디스, 기획전시 등으로 구성된 '2017 산업단지 프레 비엔날레'를 진행 중이다. 2015년 개관한 소촌아트팩토리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과 문화네트워크로 주민 문화향유 기반을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소촌아트팩토리의 '산업단지 프레 비엔날레' 첫 기획전시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노동자×예술가 사진 프로젝트 맘'이다.

'럭키소촌 차세대 작가 레이디스'는 이달 20일 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작가에게 스튜디오, 창작 지원금과 재료비, 홍보 대행, 도록 제작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광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만 49세 이하 작가가 대상이며, 장르는 시각예술 또는 다원예술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작가는 소촌아트팩토리가 두 차례 진행되는 기획 전시에 참가한다. 첫 번째 기획 전시는 10월 14일~11월 2일 진행되는 '작가의 사생활'로 예술가의 작품관을 담은 설치물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이어 올 한해 진행한 꼬달락 토요문화학교를 총 결산하는 광산 시민문화예술축제 '일상이 아트, 내 맘은 아트'를 11월 4일부터 14일 동안 열며 광산 시민문화예술축제 기간에는 시민참여 콜라보레이션 '엄마의 서랍, 아빠의 호주머니 전'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큐브미술관에 전시한다.

그밖에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레이디스 선정 작가와 함께 하는 두 번째 기획전시 '시민과 함께 하는 페리디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문의 062-960-36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티첼리·라파엘로...베를린 국립회화관 명화들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행사... 17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인문지행 27회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는 독일 베를린 국립회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화들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플랑드르 미술을 대표하는 피테르 브뤼헬을 중심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그리고 16세기 걸작들을 만난다. 감상할 작품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와 '젊은 여인의 초상',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두 요한' 브뤼헬의 '네덜란드 속담' 등이다. 보티첼리의 작품은 베를린 국립회화관의 자부심으로, 총 6점이 별도의 방에 전시돼 있다.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심옥숙 대표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인문지행 : cafe.daum.net/h-aret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심옥숙 대표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인문지행 : cafe.daum.net/h-aret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브뤼헬 작 '네덜란드 속담'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